

우리 믿음의 깃발

The Banner of Our Faith

“한가지가 확실한데, 사단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포함된 경교와 견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Last Day Events, p. 177]

이것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드물게 취급되는 또 다른 기사들 중에 하나이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로 정해진 수도관임을 아직도 확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 자들과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음에 말하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관점 안에서 큰 관련성이 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읽고 이해하고 가깝게 이끌리는 자들을 내가 격려한다.

근래에, SDA 웹사이트에서 전하는 바 (여전히 어떤 자들이 ‘영적인’ 재림교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그 명칭을 포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여전히 [가려뽑은 기별 2권 384 페이지]에 있는 기별을 이 마지막 날에 적용할 수 있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단념하기를 찬성하는 자들의 논쟁이 되는 주된 신뢰심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 1) 하나님께서 1860년경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주셨다.
- 2)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배교하였고, 따라서 그 이름이 파괴되었다.
- 3) 남은 자들이 배교한 조직과 함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포기할 것이다.
- 4)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간직하는 자들은 무지해서, 또는 그들이 그 명칭을 하나의 “우상” 또는 하나의 “신”으로 만든 어느 한쪽에 이유가 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점을,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유지하는 참된 이름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말씀에서 변절한 자들에게 선언하기를, “너희는 나의 택한 자에게 너희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 두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임이라.” (이사야 65:15)

비록 이 구절에서 말한 것이 그 손상된 이름이 택한 자들에게 남겨졌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단순히 “외면적인” 싸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논쟁이 된다: 그들이 말한 것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타락한 이전 교회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이름을 택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정도는 참되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할 것은, 이전에 어떤 이름들도 시종 버려진 바 되지 않았다. 이것이 확실한 것은, 개신교도들이 혼란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그들 자신들을 “개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이 명칭들의 어느 것도 근본적으로 영감에 의하여 명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심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에레미야 18:4) 히브리 용어에서 “다시”가 분명한 원칙을 드러낸다. 그 단어가 *acher*, 이 뜻은 “따라서” “한층 더 나아가서” 또는 “다른 것”이다. 초기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충실한 자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사실을 개의치 않는 또 다른, 그 이상의 이름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것이 당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한층 더 구별하기 위하여 새 이름이 이전 이름을 대신하지 않는다.

요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의도로 직접 주어진 모든 이름들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2, 요한일서 3:2) 이스라엘, (창세기 32:28, 에베소서 2:12)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6:28, 베드로전서 4:16) 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2 SM 384, 1 T 224]. 이것이 참된 것은 근본적인 새 이름이 자주 이전 이름을 대신하였고, 여기에서 바로 SDA 이름도 독특한 이름으로 참된 사자를 통하여 선포된 것이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그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 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가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서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왕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펴려야 하기 때문에,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1, p. 220]

위에 진술이 과거에 이름 없는 야웨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든지 (배교를 포함)하여 묶여지지 않았고, 계속 세상의 방책에 영향으로부터 직접 좌우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 성경과 화이트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조건부의 예언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름이 있기 이전, 어떤 시대에도 조직의 이름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독점적으로 야웨를 경배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똑바로 뒤따르는 자들이다. 잠재적인 혼란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현재 마지막 때에 있는 문제들은 아주 다르다! 많은 그룹들이 야웨를 경배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많은 그룹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그룹들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이름이 있기 이전 어떤 시대에도 그들의 이름 때문에 사탄의 분노가 그 이름을 가진 백성들을 반대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믿음들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들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중회와 결부되지 않은) 충실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조소를 받고 (재판소들의 법과 공중의 의견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들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그들을 뚜렷이 구별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포기하고 그대의 믿음을 계속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참되지 않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한 것이고, 또 “어떤 이름도 적절하게 택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독특한 백성으로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실제로 교회가 창설된 계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에 요소가 된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그 이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자신들이 타협하고 변명하기를 추구하는 자들이며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고, 이 방식으로 그 이름 그 자체를 우상 또는 신으로 만들었으므로 그들의 판단이 참되지 않다.

안식일을 지켜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No.
의복 개혁과 건강 개혁을 실행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No.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고, 성경말씀의 원칙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개혁들을 실행하는 자들이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재출발 한 자들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일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것이고, 또 그 이름이 엘렌 화이트의 기록들과 일치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전문어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녀를 선구자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사상을 잇고, 또 비난이 올 것은, “그래서 그대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인가?

No.

야웨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선물이고, 무거운 짐들이 아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짐을 져야 하고, 또 우리에게 부끄러운 명칭이 될 것이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이름들이 몹시 손상되었다; 만일 어떤 자가 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말하기를 “그대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자가 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또는 내 이름을 반대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임을 포기하라”고 하면, 갑자기 이탈자들이 그들의 규칙들을 변경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중 기준이다; 이것이 위선적인 행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16) 어떤 자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이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사도가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이 이름이 진흙 속에서 질질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이름을 존중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SDA 협회로부터 실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SDA로 인정하면 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평계로 하늘에서 내린 지시들을 포기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영적인 유대인,” “재림을 믿는 자,” “남은 교회의 멤버” 등등으로 부르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만큼에 혼란이 될 수 있고 한층 더 많은 잠재적인 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사악한 시대에서 성실하게 믿는 자가 택한 어떤 이름이든지 잠재적인 혼란이 있다. “혼란”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장 나쁜 결점들은 사람이 이 어두운 상태들 아래에서 무엇이든지 행하여 훌륭한 것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사람들을 혼란시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림교에 대한 (어쩌면 정당화 한) 편견으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있는 솔로몬이 숙고한 것은, “내가 이집트로부터 말들을 가져와서 내 군대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탈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아주 교묘한 논쟁이 된다. 우리가 그들 둘 다를 믿음의 부족으로 불순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선하고 이론적으로 옳게 보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결코 거룩한 명령들로 택할 수 없다.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우상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행해야 할 것들과 “재림교인”들로서 행해야 할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다,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이름을 포기하고 진리를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없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참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적절한 이름이 없다. **참으로** 진리는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발견된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말하기를,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름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 결과 “용이 잠잠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만든 도표를 보자.

그들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름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영적인 바벨론이다: “SDA 교회는 진리 안에 있지 않다. 여하튼 어떤 그룹도 모든 빛을 소유하지 않았다.”

세속적이다: “대총회가 국가 법의 방책으로 이 이름을 보호한다. 이것은 그대가 옳지 않게 행하는 것이다.”

첫째 짐승: “[로마] 개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대는 절대로 개신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짐승: “만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이름을 보유하면, 대총회 SDA 조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그룹들을 우리가 고소할 것이다.”

오리무중 하다: “하나님께서 오직 마음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대가 그대자신을 어떻게 부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렵다: “나의 기도는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가진 풍부한 믿음으로 감옥이라도 (가야 한다면)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타협: “만일 우리가 SDA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혼란케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재림교인들이 될 수 있다.”

손가락질하는 자들: “SDA 이름이 손상되었다; 나는 그 이름과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 이 도표에 있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거나 또는 포기하는 동기가 되며 (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써 무엇인가를 행하고 - 또는 속인으로써 행하는) 이것이 “마음 속”에서 아주 대단한 문제가 된다. (야고보서 2; 18)

위에 도표에 있는 어떤 항목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참작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정확하게 총망라한 목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어떤 그룹들이나 어떤 사람이 공감하는 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은, 그들의 동기가 가짜 교리들에 의하거나 또는 노골적인 이기심에 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견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토론이 아니다; 이는 야웨의 명령들을 불순종하기 위한 동기들을 숨긴 이유들을 분명하고 또 솔직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하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명백하다. 슬픈 것은, 흔히,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행하지 않는다.

바벨론에 어떤 자가, 세 명에 훌륭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형상에게 절하라. 그대에게 명령한 것이 형상 앞에서 실제로 그대의 몸들을 굽히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대가 바로 그것에게 경배하는 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야웨의 성품과 진리에 관하여,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외면적인 정직함을 포기하면 그들의 기별에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창조 SDA로써 말하기를 “오, 우리가 그것이 올바른 이름임을 이해하였으므로, 비록 우리가 이 명칭을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재림교의 기별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면,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기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견해의 신학이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은, 이 기별 안에서 충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지켜질 때, 완전한 상태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깃발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한 인용문을 검토할 대단한 가치가 있다:

“세째 천사의 깃발 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기관들은 우리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명칭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이 명칭의 의미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명칭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빛을 따르게 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자. [Ex. 31:12-13, 17, 인용문]

[...]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이름한 한 무리가 나에게 계시로 나타났다, 저희는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는 깃발이나 표징을 유별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고 있었으며 저들은 우리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특색이 있는 깃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파란을 겪어 나가야만 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 12) 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 세상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기념일을 없이 하고 죄악의 사람의 기호를 지니고 있는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일체히 연합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사이에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자들이 그 깃발을 옮겨 안식일의 중대성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희 손을 내뻗는 것을 보았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3, p. 68,69]

영감이 보여준 지시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우리의 믿음들로 사용하였다. 어떤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인용문에서 중심이 되는 두 핵심을 은밀히 손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설득하였다.

a)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조직”이 그 이름을 택하였으므로, 교회의 평신도 멤버들에게는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한다.

b)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깃발 위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특징적으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 자매가 언급한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충실한 성경 연구가든지, 이 두 가지 결점들을 엘렌 화이트의 기록들로, 또 재림교 역사로 쉽게 완전히 파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태에서, 그 이름이 평신도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이 두드러지게 잘못된 것이 쉽게 드러났다.

인용문 자체에서, 화이트 자매가, “우리 기관이 택한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결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인용문을 읽으면, “우리의 기관이 택한 이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을 나타내고, 또 이 이름을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강조) 주의할 것은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멤버들이므로, 그 이름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할 책임이 위탁되었다 (깃발이 아니고, 그 이름이 관련된 것을, 그대의 마음에 명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내가 제시한다.)

종종 우리가 다른 곳들에서 읽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망신시켜 드린 때가 있었다. 우리의 믿음을 오랫동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베를 크릭 요양원에 의한 진술이 우리 교단에 진리가 아니었다. 아무도 이러한 진술을 옳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증거를 가진 그분의 백성들로써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적합한 증언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로 우리가 우리자신들을 확인한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의 기장이 부끄럽거나, 또는 다른 깃발 아래에서 있기를 원하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의료선교 사업을 대표하지 말고 개인에 속하는 비공식적인 사업으로 행하게 하라.” [Battel Creek Letters, p. 52]

유의할 것은, 한편으로 그 “기관”이 진술한 것에 의하여 어떤 자가 놀란 것은 그 진술이 조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 멤버들이 “그 깃발”을 강하게 들어 올려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의 기장이 부끄러우면...” 이라고 개인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것이 역시 그 깃발로 이름을 상징하고 또 관련된 것을 증거하므로,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진술로 인도한다.

b)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깃발 위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명확하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 자매가 언급한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

그 깃발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반대가 될지라도, 이 사실이 완전히 영적인 것이고, 우리 깃발 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우리의 논쟁은 (서론에서 주어진 다른 인용문들을 뒷받침 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유일한 이름이 그 깃발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되며, 이 깃발이 시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가 예언을 읽으면 “능력과 힘이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대 앞에 굳게 서서 말하기를,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우리가 가진 세 천사의 기별들에 관한 진리를 나는 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숨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경고와, 책망과, 격려의 기별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깃발에 기록된 기별을 높이 들어 올려서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9, p. 133]

깃발은 물질적인 사물이 아니고; 영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인”이 신체적인 인이 아닌 것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 조금도 “읽을” 수 없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MR1 249, 250] 어떤 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화이트 자매의 인용문에서 그 언어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깃발 위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준 이름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결점이 있는 논쟁이다. 모든 문맥이 교회 이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전후 관계가 아주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깃발 위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기별이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다. 여전히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외에] 다른 이름은 적절하지 않고,” 그 기별을 소유할 자들이 그 이름을 택하게 될 것을, 저술가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무수한 경우들에서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가 다양한 증언으로 분명하게 배려하여 기록한 것이며 이는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로부터 떠날 것을 그녀가 말한 것이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섞이면 안될 것이다. 원고 (MR) 13권에서 함축한 인용문이 아주 현격하게 명백하므로 내가 준비한 일람표 안에 기입된 반대자들을 솔직하게 피하였다. 그 이름이 깃발 위에 기록된 것은, 그 깃발을 지탱할 자들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별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깃발 위에 기록되었고, 또 이것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이다; 그러므로, 그 깃발이 시험기간이 가까울 때 태어난 것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은 인용문에서 취한 것) 오직 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이름을 포기함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또는 배교) 때문이면,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의 어떤 기록들 안에 있는 인용문들의 중요성을 능가하여 절대적인 논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구자들의 기록에서 내가 읽는다... 어떤 다른 사람의-영감에 의한 명칭이 “인기가 있으므로” 그것이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게 된다.

왜, 오직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유지하는 자들이 깃발에 기록된 언어들에 적절하게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준 이름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적인 추리이며, 바벨론의 명령들이고, 세상이 유도한 것이며, 첫 췌 또는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이고, 이탈자들의 언쟁들이며, 또 단서가 없고, 또 신앙심이 없으므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결코 실제로 없었던 명령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여 주어진 것이 영적인 계명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또 이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므로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타협과 위선에 의하여 깨끗함이 떠났으면 유지할 깃발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 하는 것은, 엘렌 화이트가 분명히 그 깃발이 시험기간이 가까울 때 태어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허위다. 기관들과 개인들의, 참된 이름들에 대한 문맥에서, 초기에 인용한 부분을 반복하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한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의 기장이 부끄럽거나, 또는 다른 깃발아래에 서 있기를 원하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이 택한 그 이름]을 의료선교 사업으로 대표하지 말고 개인에 속하는 비공식적인 사업으로 행하게 하라.” [Batle Creek Letters, p. 52. 추가 강조]

물론, 어떤 자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분명히 그 ‘기장’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아니다.”고 한다. 이것은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적절하고 유일한 이름인가, 또 그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여 우리자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장들이다.

내가 이와 같이 결말짓는다: 이 문제는 이름에 관해서가 아니고 또 (반복하면) 결코 이름 때문이 아니었다. 이 문제는 예수 믿음에 관한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명령들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에 의하여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믿음은 성화 된 생애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은 구원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다. 이 믿음이 모든 쟁투들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분의 백성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 믿음을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장려하고, 또 이 동일한 믿음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글자 그대로 또 영으로 둘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이 동일한 믿음이 뚜렷이 구별되는 재림교의 교리들을 지키도록 인도한다. 이 동일한 믿음이 성경말씀에 있는 원칙대로 “거룩”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이 동일한 믿음이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과 그 이름이 관련된) 깃발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그분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사도행전 5:29)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의 양심을 반대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 내가 입법 의회 앞에서 굳게 맞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Martin Luther before the Diet of Worms, Quoted by D'aubigne in History of the Reformation, p. 245]

David.